

“공·사립학교 차별없이 지원”

서거석 교육감, 도내 사립학교 교장들과 간담회서... 도내 교육 현안 논의

서거석 교육감이 도내 사립학교 교장들과 교육 현안을 놓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본청 강당에서 사립 고등학교 교장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사립학교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 교육감은 학력 신장, 교원과 학생인원의 균형과 발전 등 주요 교육정책을 설명한 뒤, 각종 교육 현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먼저, 고3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

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각 학교에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학원이나 스터디카페 이용을 줄이고 학교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현대식 자율학습실을 구축해달라는 요구에 “현재 구상 중”이며 “학교별 형편을 파악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상향 요구에 “올해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금액은 학급당 160만 원으로

지난해 70만 원 대비 2.2배 인상했다”면서 “앞으로도 도교육청 예산 상황을 고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 감소로 사립학교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도교육청은 공·사립학교의 균형 지원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면서 “공·사립학교에 대해 차별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서 교육감은 공·사립 특성화고등학교 교장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재난대응 통합연계 훈련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일 5층 회의실에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환으로 훈련상황 보고회 및 통합연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교육감 주제로 긴급재난상황 발생 시 운영되는 사고수습본부 직접 가동해 재난상황 발생 현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통합연계훈련은 양지중학교에서 지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시작했다. 사고를 보고 받은 후 즉각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해 재난대응 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긴급 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다.

사고수습본부에서는 양지중학교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부상학생의 응급조치를 지시했다. 이후 시설복구 및 학사운영, 재난 학교 학생 심리지원 등 지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상황발생에 따른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1일 오전 신축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4호관에서 양오봉 총장과 임석태 의과대학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이 열렸다

‘의과대학 커뮤니티의 중심’

전북대 의과대학 4호관 문 열어 의대 정원확대 대비 교육여건 확보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4호관이 문을 열었다.

1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신축된 의과대학 4호관 컨퍼런스 룸에서 양오봉 총장과 임석태 의과대학장, 유희철 전북대병원장, 최병선 전북대 총동맹회장 등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임석태 의과대학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개소식에서는 고품격 의과대학 연구부하장의 경과보고와 신축 공사를 맡은 (주)세움토건 대표에 대한 감사패 증정, 개소를 축하하는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의과대학 4호관은 전북대 의대의 대규모 학생 증원에 따른 학생 교육여건 개선과 의사 국가고시 시험 유형 변화에 대비한 대규모 학생 수용 멀티미디어실 및 교원의 연구실 확충 등의 필요에 따라 전북대가 국고를 유치해 설립됐다.

특히,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사업비 178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6,891㎡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인 의과대학 4호관에는 대강의실 3개실을 비롯해 중강의실 2개실, PBL실 14개실, CBT실, OSCE실습실 17개실, CMS종합시험실, 시뮬레이션실, 컨퍼런스룸, 라크공관 등이 들어서 의과대학의 커뮤니티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최근 전국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북대는 의과대학 4호관 개소를 통해 최대 160명의 학생이 동시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교육여건을 이미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개소식에서 양오봉 총장은 “의과대학 4호관 건립은 최고의 교육·연구 시설로 그 위상을 갖추며 전북대 의대가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수준의 의과대학이라는 면모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며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서 의학발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석태 의과대학장은 “전북대 의과대학은 2021년 개교 50주년을 맞으면서 함께 다져 온 의학 50년, 세계에 우뚝 설 미래 100년 을 슬로건으로 담담하게 나아가고 있다”며 “4호관 개소가 우리 의과대학이 나아가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1일 전북도교육청 본청 강당에서 사립 고등학교 교장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사립학교교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서거석 교육감이 주요 교육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교원 치유 ‘온 힘’

도교육청, 치유 지원 진료기관 전북대병원 등 대형병원으로 확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교육활동 침해 및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온 힘을 쓰고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1일 5층 회의실에서 전북대학교병원을 비롯한 도내 대형병원 6곳, 7개 회원병원으로 구성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북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 전라북도군산의료원(의료원장 조준필), 대지인병원(병원장 이병관), 전주병원(의료원장 김중준) 등이 참여했다.

또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북지부(회장 정일관, 군산 나눈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와의 협약으로 기존 33개 회원 병원에서 운영되던 진료기관을 76개 전체 회원 병원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및 직무스트레스를 치유하고 예방하고자 교원 심리상담 및 진료자원을 봉



1일 전북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교원 치유와 관련, 전북대학교병원을 비롯한 도내 대형병원 6곳, 7개 회원병원으로 구성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북지부와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 왔다.

특히 올해 3월 전북교원치유지원센터 업무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이관, 교원치유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등 치유가 필요한 교원에게 신청부터 지원까지 원스톱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교원 1인당 120만원(상담비 진료비 및 검사비)을 지원하고 있다. 10월 현재까지 교원치유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은 건수는

상담 296건, 진료 146건, 법률자문 40건 등 총 482건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6개 대형병원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북지부가 치유가 필요한 교원의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고, 마음을 보듬어 주고자 협약을 맺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교육활동과 직무스트레스로 치유가 필요한 교원의 치료를 지원해 건강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찾아가는 스마트기기 활용 연수

전북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원장 강혜정)은 공·사립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마트기기 활용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회기의 교육지원청 중심 디지털 시대 유아교육 방향에 대한 기초강연과 40회기의 유치원별로 찾아가는 스마트기기 활용 실기연수’에 총 1,215명의 교원이 참여했다.

먼저 기초강연은 유치원 교원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유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유아기 디지털 기기를 바르게 활용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초점을 맞췄다.

이어 40회에 걸쳐 진행된 실기연수는 교육지원청과 유치원으로 찾아가 실시했다. 6개의 영역으로 나눠 △멀티그림책 만들기 △유아랑 선생님이랑 함께 동영상 △캔버라 활용한 놀이 지원 자료 제작 △디지털기기 놀이 기록 및 활용 △다양한 디지털 놀이 △미래의 유치원 교실 체험 등으로 운영됐다.

특히 실기연수 중 멀티그림책 만들기는 유아들이 자유롭게 즐겁게 그린 그림을 활용해 멀티그림책으로 만드는 연수로, 교사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학급 전체 유아가 그린 그림이 멀티그림책 안에서 움직이도록 유아와 교사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줬다. 또 쉽고 간단한 동영상 만들기는 교육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교육활동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가정의 학부모와 공유했다.

유아드림 AI로봇 활용, 코딩놀이, VR체험에 참여한 교사들은 “체험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고 더 체험하고 싶었다”면서 “유치원 교육활동에 반영하겠다”고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1일 오전 10시 LH 전북지사 소풍공관에서 토지구획연구원, LH 전북지사와 ‘기후변화와 위기극복을 위한 친환경 주거와 지역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탄소중립 실현 위한 친환경주거 담론 고찰

전북대, 토지구획연구 · LH전북지사와 포럼

전북대학교는 1일 오전 10시 LH 전북지사 소풍공관에서 토지구획연구원, LH 전북지사와 기후변화와 위기극복을 위한 친환경 주거와 지역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대 박희준 교수는 ‘탄소중립과 가능성 건축자재’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친환경 목재의 활용과 관련 연구개발 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라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목조건축이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며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목조건축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생산과 사용 단계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친환경 건축자재와 화재와 습도, 소음 등에 강한 기능성 건축자재의 개발이 친환경주거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시현 토지구획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 주거’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공공주택 설계의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제로에너지 신축 사업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또한 최정만 (사)한국에너지건축협회 회장은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설계기술’에 대한 발제를 통해 제로에너지 공공주택과 기술의 변화를 살펴보고, 제로에너지를 위한 단열과 환기 등의 설계의 실제 모델을 제시했다.

한편 오는 3일까지 LH 전북지사로 비에서 전북대 주거환경학과 학생들이 지역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공간적 해법을 모색할 주거공간 우수 설계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도 진행된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베트남 하노이과기대, 글로벌 밸류체인 공동 구축 ‘맞손’

글로벌 인재 양성 등 지원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가 베트남 하노이과학기술대학교(HUST)와 손을 맞잡고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밸류체인 구축에 나섰다.

1일 우석대에 따르면 이날 하노이과학기술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 글로벌 인재 양성과 국내 기업의 첨단기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후임 꾸엩탕(Huynh Quyet Thang) 베트남 하노이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나혜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 성도경 비나텍(주) 대표이사, 최낙삼 성일하이텍(주) 총무부장, 서민강 ECO융합심사연구원, 신현규 한국특소산업진흥원 제품기술부 부장, 박종현 탄소수소융합산업 연구조합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양 대학은 전라북도·한



우석대학교가 베트남 하노이과학기술대학교와 손을 맞잡고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밸류체인 구축에 나섰다.

국특소산업진흥원·탄소수소융합산업 연구조합·ECO융합심사연구원·비나텍(주)·성일하이텍(주)과 함께 △미래 신성장 산업 분야 프로젝트 발굴 및 제안 △국제 공동 R&D 프로젝트 기획 및 기술 교류 △석·박사 학위과정 공동 운영 △단기 교육프로그램 교류 △외국인 유학생 지역 정주 지원 △위트숍 및 인적 교류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천현 총장은 “베트남 하노이과학기술대학교와 함께 탄소와 수소·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 대학과도 긴밀한 협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후임 꾸엩탕 총장은 “양 대학의 기술 협력이 필요한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